

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-러 통상,산업 발전과제

2014. 10. 27.



KRBC
Korea-Russia Business Council

[목 차]

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-러 통상,산업 발전과제

I.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 환경 특성

II. 우크라이나 사태와 향후 러시아 경제 전망

III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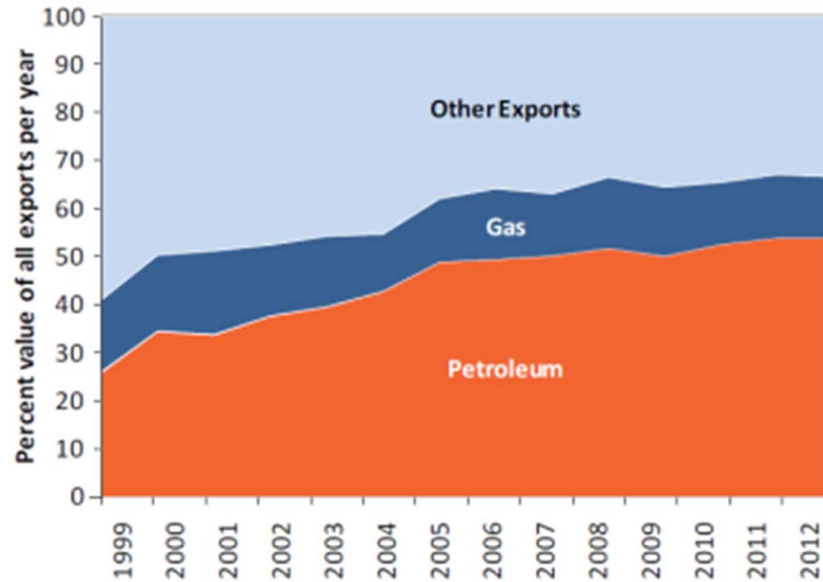
IV. 한-러 통상,산업 발전과제

I.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 환경 특성

1. 자원의존형 경제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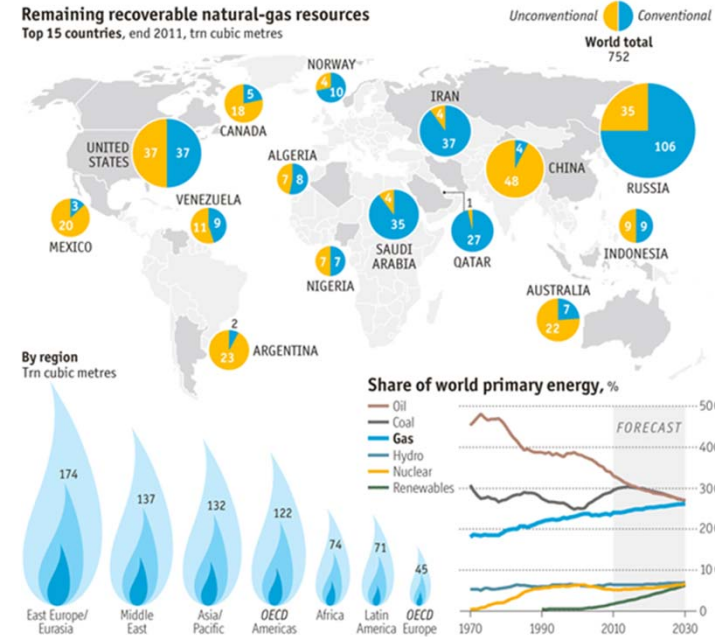
- 2013년 기준 러시아 경제는 석유,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이 전체 수출의 약 71%, GDP의 24%, 재정 수입의 49%를 차지, 원유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지속으로 자원의존형 경제발전의 구조적 한계 봉착
- 2013년 기준 러시아 총수출에서 천연자원 수출 비중은 71.4%, 제조업 수출 비중은 28.6%를 차지하는 등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은 더욱 상승

<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석유·가스의 차지 비중 >



* 출처: UN Comtrade 2013.09.25 기준

< 국가별 개발 가능 천연가스자원 보유 현황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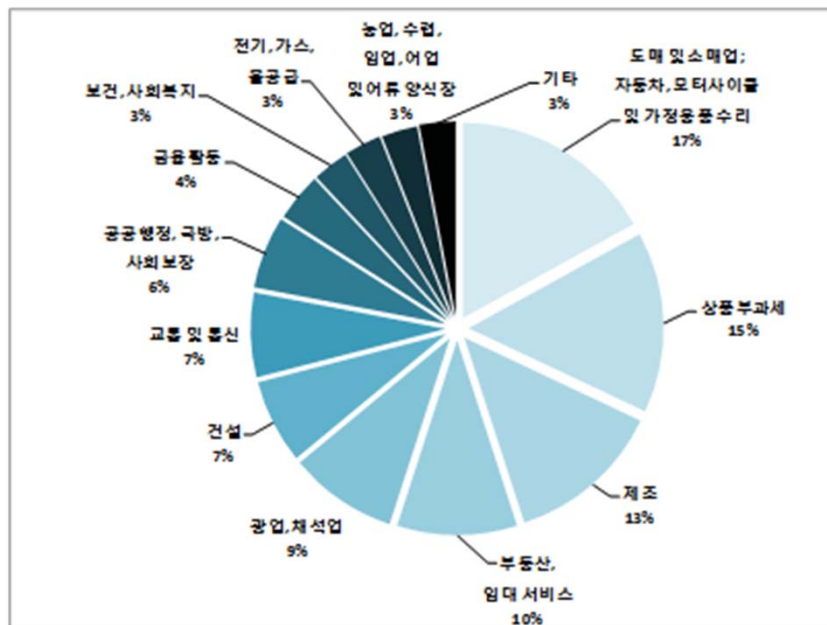
* 출처: International Energy Agency BP / 2011년 말 기준

I.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 환경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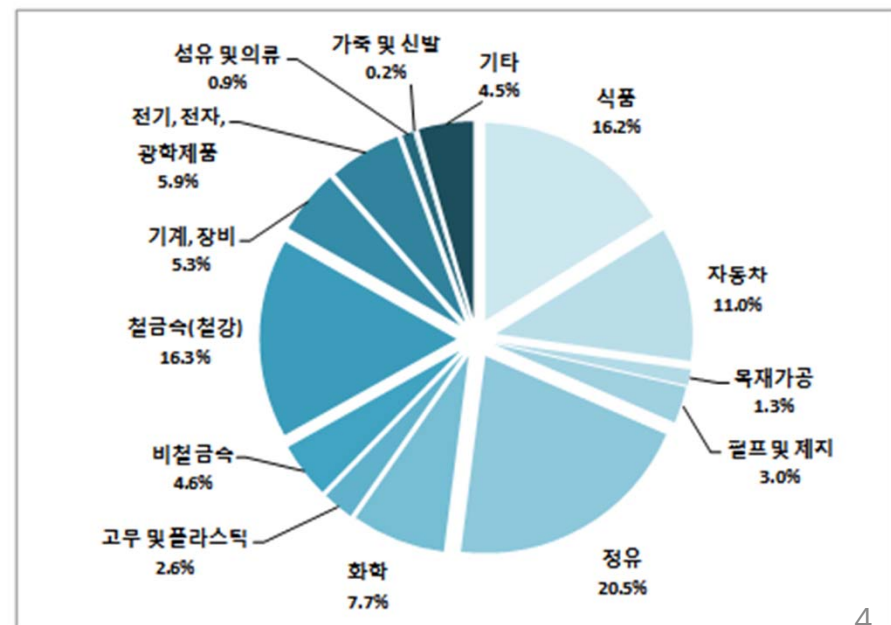
2. 제조업 경쟁력 기반 약화

- 체제 전환 후, 자원 의존형 경제개발로 낙후된 제조기반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**우주, 방위산업 제외 상품경쟁력 없음**
- 제조업 기반시설의 노후화, 첨단기술 부재, 낮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, 숙련 노동자의 부재 요인 등으로 연료에너지 및 가공산업 분야를 제외(정유, 화학, 금속가공 등)한 기타 제조산업은 전반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**단기간 내 경쟁력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**
- 제조업 발전 요인 중에서 최근 긍정적인 요소는 러시아 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(2012년 기준 USD 57억 \$) 그러나,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EU기업들의 직접투자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

< 2012 GDP Breakdown >



< 2012년 러시아 제조업 중 산업별 비중(생산액 기준)>



* 출처: RBC

I.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 환경 특성

3. Doing Business in Russia

- 국가 주도 국가자본주의 경향과 비효율적 행정 관행, 공무원 부패 문제가 여전히 부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문제로 남아 있으나, 점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등으로 Doing Business 평가에 따르면, 러시아는 2014년 189개국 중 92위를 기록하면서 2013년 대비 20단계 상승하였음.

< Doing Business 평가분야별 환경개선 현황 >

평가분야		2012년 순위	2013년 순위	개선	2014년 순위	개선
종합순위		120	112	△8	92	△20
분야별 순위	창업	111	101	△10	88	△13
	건설 허가	178	178	-	178	-
	전력 확보	183	184	▽1	117	△67
	재산 등록	45	46	▽1	17	△29
	은행 자금 차입	98	104	▽6	109	▽5
	투자자 보호	111	117	▽6	115	△2
	세금 납부	105	64	△41	56	△8
	국경 간 무역	160	162	▽2	157	△5
	계약 이행	13	11	△2	10	△1
	분쟁 해결	60	53	△7	55	▽2

* 출처: World Bank

I.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 환경 특성

4. 중산층 증가에 따른 유럽 최대 소비시장

- 2001-2010년 사이 러시아 중산층은 2배 가량 증가했으며, 경제 발전과 더불어 시장의 소비주체로 부상
- «Rosgosstrak»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산층은 연 소득 USD 2만\$(대도시 기준 USD 3만\$)로 정의
2012년 기준 연 소득 2만\$의 세대 수는 1,500만 세대(전체인구의 29%)를 차지하며, 연 소득 USD 3만\$의 세대는 950만 세대(전체인구의 18%)라고 발표. 향후 5년 내에 27%의 국민이 중산층에 새로 편입 예상
- 러시아 중산층 및 신흥 부유층 증가 요인 등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시장에서 luxury consumer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.

<러시아의 EU 상품 구매력>

Big Custom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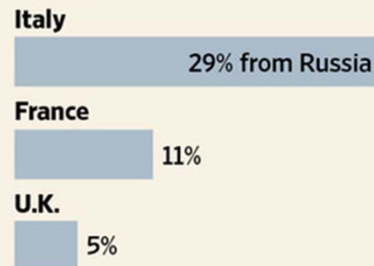
European countries worry that business could suffer if sanctions against Russia escalate.

Russia is a major market for German auto make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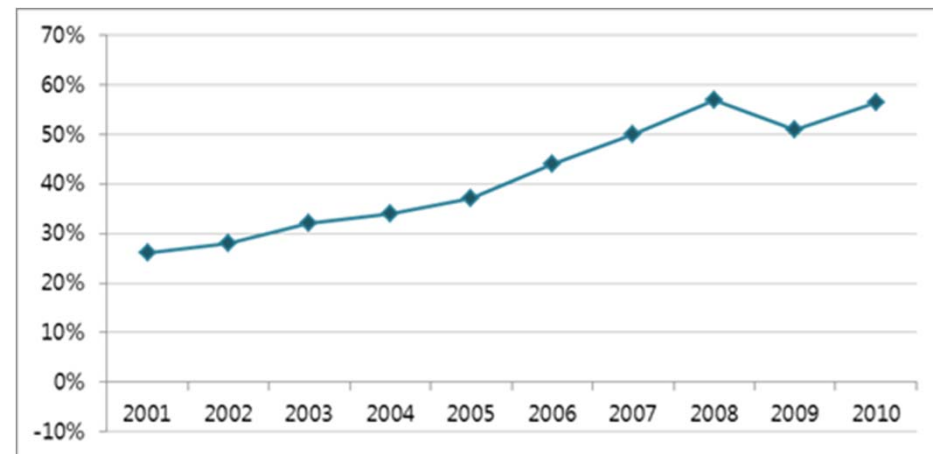
*Excludes foreign car brands owned by German carmakers
Sources: German Car Makers' Association (car sales);
Altgamma and Global Blue (luxury purchases)

Luxury goods purchases by tourists from outside the European Union, 2012 data:



The Wall Street Journal

<러시아 중산층 증가율 (2001-2010 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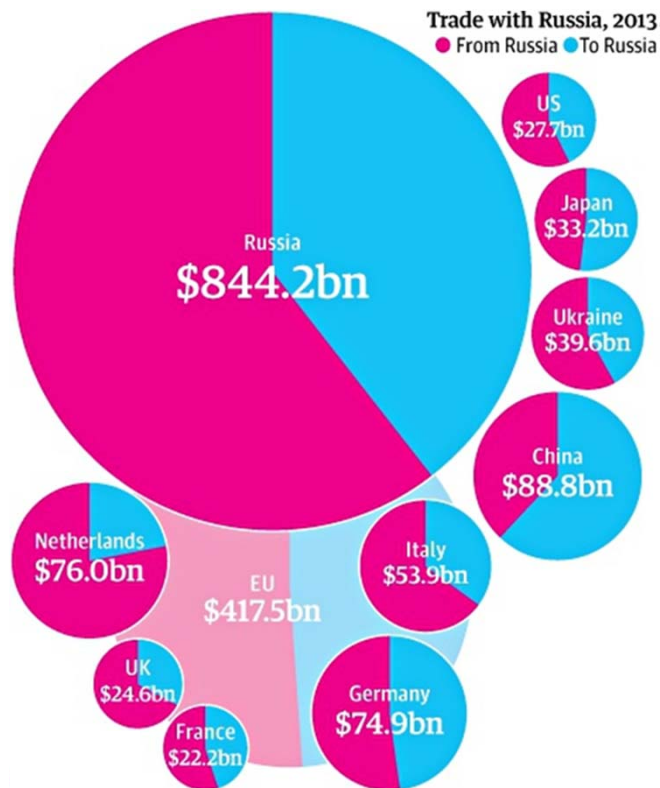
* 출처: RLMS데이터 기반 World Bank 발표

I. 러시아 주요 비즈니스 환경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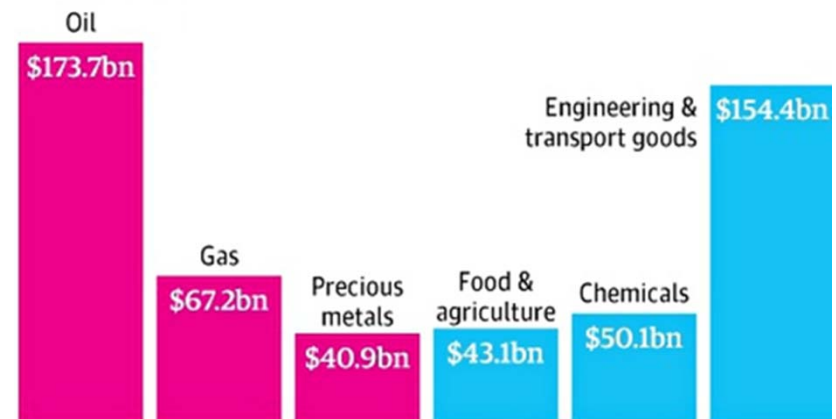
5. 러시아의 주요 국가별 대외교역 현황

- 2013년 러시아 대외교역량은 USD 886.9십억\$, 총수출은 USD 512.6십억\$, 총수입은 USD 344.3십억\$로 기록됨. (러시아 통계청 기준)

< 2013년, 러시아의 주요 교역 국가별 교역량 >



<2013년 러시아 품목별 교역량>



Ⅱ. 우크라이나 사태와 향후 러시아 경제 전망

1.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배경 (경제적 관점)

- EU ↔ EEU간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권 간 충돌

: EU의 EP(Eastern Partnership) : 구소련 6개국과의 자유무역, 비자면제, 경제협력 등을 통한 EU 영향력 확대

: Eurasian Economic Union :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, 벨로루시 3자간 관세동맹 확대 공동경제구역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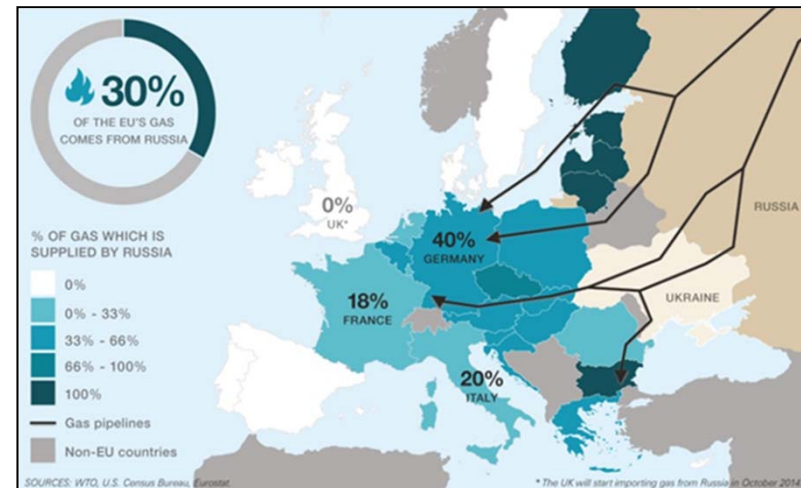
-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에 따른 경제전쟁 발생

: EU-EEU 간 경제블록 확대 충돌, NATO의 동진전략, 러시아 에너지 수출 공급선 확보 등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, 우크라이나의 정치혼란, 경제붕괴 현상 요인 등으로 EU&USA ↔ 러시아가 분쟁에 개입하면서 양측 간 경제제재, 통상마찰,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.

<EU-우크라이나-Russia의 지정학적 위치>



<대 EU 가스관 및 러시아 가스 주요 수입국>



Ⅱ. 우크라이나 사태와 향후 러시아 경제 전망

2. EU/USA-RUSSIA 간 상호 경제제재 현황

- EU/USA는 대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(아킬레스건)을 악화시킬 수 있는 금융 제재, 에너지산업 차단, 자산동결, 국방 분야 산업 규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.
- 그러나, 이번 상호 제재는 당사국들뿐만 아니라, 글로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

< EU/USA의 경제제재 조치 주요 분야>

- 1,2차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은 금융, 에너지 및 군수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제재를 근간으로 함

- ✓ EU 자본시장 접근제한 등 금융제재 강화
- ✓ 에너지관련 상품, 장비, 서비스, 기술 제공 금지 (sensitive technologies 수출금지)
- ✓ 국방분야 제재 강화
- ✓ 특정인사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
- ✓ 러시아 원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약화 전략

→ 현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금년 230억 유로(GDP의 1.5%), 내년에는 750억 유로(4.8%) 손실 예상

<러시아의 경제제재 무역보복 조치 분야>

-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해 농축산물 수입중단 등으로 맞대응

- ✓ 러시아는 2014년 8월 7일 식품수입 중단 조치를 확대하여 미국, EU, 호주, 캐나다, 노르웨이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1년간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 (참고: 2013년 러시아의 유럽산 식료품 수입액 138억불)
- ✓ 정부조달사업에 독일 등 EU국가 진출 제한
- ✓ 우크라이나 관세특혜 폐지, 유럽 가스공급 카드 고려

→ 현 러시아의 대 EU 무역 보복조치로 금년 400억 유로(EU GDP의 0.3%), 내년 500억 유로(0.4%) 손실 예상

<출처: EU 옵서버>

Ⅱ. 우크라이나 사태와 향후 러시아 경제 전망

3. 러시아 경제위기 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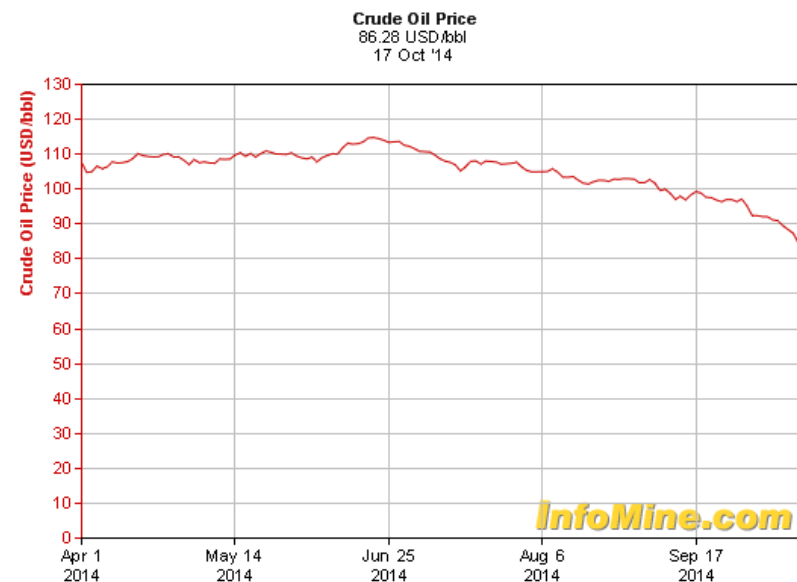
- 대 러시아 제재 강화로 러시아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,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깊어감
- ✓ **유가** : 경제성장의 바로미터인 국제유가가 금년 10월 들어 배럴당 80불대 수준으로 떨어짐으로 재정위기 도래
- ✓ **환율** : 대 러시아 제재 이후 자본 유출 증가, 인플레이션 상승, 유가 하락으로 금년 10월 달러당 40루블선 붕괴
- ✓ **자본유출** : 중앙은행은 금년 1/4분기-약 488억불, 2/4분기-258억불(전년 동기대비 5배 증가) 정도 자금 이탈

→ “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서방국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성장 모델이 추진력을 잃게 돼 향후 3년 동안 연간 1%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고통을 맛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”

<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> (단위: 십억불/%)

구분	2013	2014	2015
GDP 성장률	1.3	0.5	1.0
연평균 소비자가격지수	6.8	7.2	7.3
연평균 환율(달러당 루블)	31.8	35.5	37.0
기본자본 투자율	-0.2	-2.4	1.5
산업성장률	0.4	1.7	1.6
수출증가율	3.4	0.3	-0.3
수입증가율	-0.8	-8.1	0.8
자본유출	60	100	40
실질소득 증가율	3.3	0.4	0.4
근로자 임금인상율	5.3	1.7	0.2
노동생산성	1.5	0.9	1.4
실업률	5.7	5.8	6.1

< 국제유가 추이 / 2014.04-10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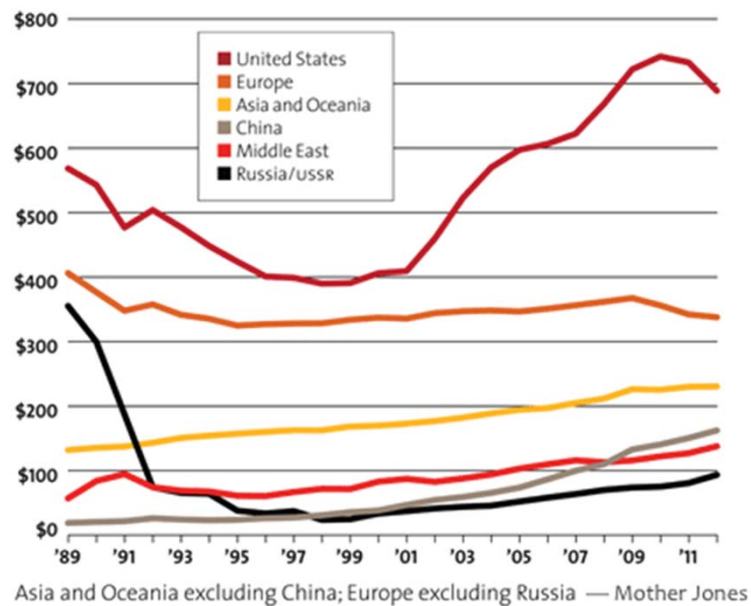
* 출처: 러시아 경제개발부(2014년 8월 발표)

IV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1. 러-미 新냉전 시대 도래

-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대러 강공전략을 선택한 국가는 오히려 미국임. 양국 간 상호 통상무역 의존성은 EU에 비해 미약하나, 국제 패권 질서에서 러-미 간 新냉전 대결구도가 첨예하게 대립
- 따라서, 우크라이나의 '親러시아化' 또는 반대로 '親서방-EU가입'은 러시아↔미국,EU 국익에 위배되는 지정학적 현안으로 향후 불가피한 정치,외교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

<2013년 국가별 군사비용 지출 현황 (십억 SU\$)>



* 출처: EUROSTAT AND ROSGOSSTA

<2012-2013년 기준, 러-미 교역 현황>



* 출처: 러시아통계청¹¹

Ⅲ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2. 유라시아 경제통합 가속화



- 2010년 관세동맹 결성 후 회원국간 상호 무역 거래량은 2010년 USD 472억 \$ → 2013년 USD 641억 \$ 로 36% 증가를 보임.

- 관세동맹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국제조약을 통해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통합을 계획함. (2015년 1월 1일에 정식 출범)

- 정식 출범될 유라시아경제연합(EEU)의 총 GDP는 USD 2.7조\$, 교역규모 USD 9천억\$, 전세계 석유매장량 12%의 단일 경제시장으로 출범
- 현재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시가 공식 참가국이지만, 아르메니아, 키르기즈스탄, 타지키스탄 등은 회원국으로 곧 합류할 예정임.
- **우크라이나를 EEU 회원국이 되길 희망했던 러시아의 압력에 반대하고 친러 정권을 붕괴시키고 EU에 가입절차를 착수함으로 크림합병 등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게 됨.**
- 한국은 현재 관세동맹 삼국의 12번째 주요 무역 파트너로 수출 USD 150억\$, 수입 USD 118억\$을 기록

Ⅲ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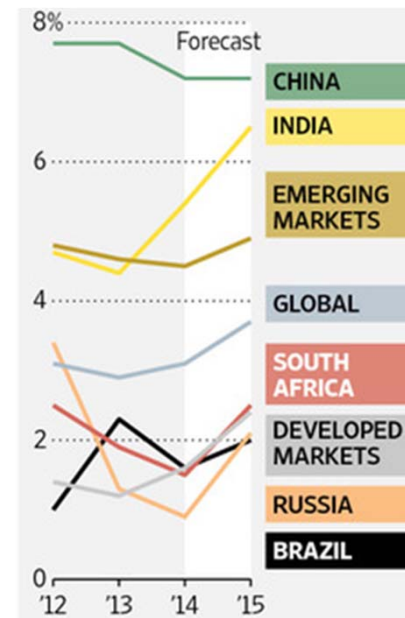
3. 브릭스(BRICs) 통합 확대

- 인구 30억 명, GDP 15.75조, 보유자산 5.12조의 거대 신흥시장 통합 가속화 노력 진행
- 특히, 브릭스 추진 세계 금융기구 설립 가속화,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(자본금 2230억불)과 국제통화기금(IMF)/USD 3,680억\$에 대응하는 자체 금융기구 추진 (초기 자본금 USD 500억\$ → USD 1,000억\$ 목표)
-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시설 구축(NDB)과 자금위기, 통화가치 하락 대비 회원국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대응기금(CRA)으로 구성
-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시장 질서 재편에 중국,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 경제대국들이 견제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
특히, 러시아는 미국, EU의 제재조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

<BRICs 경제규모>

구분	인구 (억 명)	보유자산 (US\$)	국내 총생산 (GDP)/US\$
BRAZIL	2	0.36조	2.24조
RUSSIA	1.5	0.51조	2.11조
INDIA	12.5	0.3조	1.87조
CHINA	13.6	3.9조	9.18조
SOUTH AFRICA	0.5	0.05조	0.35조
전체	30억 명	5.12조	15.75조

<BRICs 국가별 GDP 성장 추이>



* 출처: 월스트리트 저널

Ⅲ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4. 러시아 중국 蜜月 시대

-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30년간 USD 4,000억\$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SUPER POWER 경쟁, 에너지 전쟁에 본격 대응하고 나섬.
- 최근 천연가스 공급계약으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후 미국과 유럽연합(EU)의 경제제재로 인한 타격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됨.
-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값싼 에너지 확보뿐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'봉쇄'를 무력화할 수 있는 러-중 간 상호 '원원' 전략이라는 평가임. 따라서 러-중 양국의 밀월 관계 발전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.

<러-중 간 체결된 천연가스 공급 개요도/동부노선, 서부노선>



* 출처: Gazprom

<천연가스 계약체결 후 푸틴과 시진핑>



Ⅲ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5. 러시아 동진정책과 극동 발전 가속화

- 러-우크라이나 사태로 러-EU/USA 간 외교, 안보, 경제 부문 상호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예고

: 상호 맞불 경제 재제 조치에 따라 양측 모두 특히, 교역, 에너지 자원 협력, 금융 부문 새로운 대안 모색
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, BRICs 영향력 가속화 및 아태지역(Pivot to Asia) 중시정책으로 전환 시작

- 전 러-미간 新냉전 기류와 함께 미의 셰일가스 수출 전략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안보정책에 위기 도래

: 러시아는 철저히 에너지자원 의존형인 경제구조를 가짐
(‘13년 기준, 러시아 원유·천연가스산업은 국내총생산(GDP)의 24%, 총수출의 71%, 국가재정의 49% 차지)
: 러시아 원유, 천연가스 사업 전면적 위기 봉착
(천연가스 대수출시장인 유럽시장 수요감소, EU와의 정치외교, 경제마찰, 중동산 LNG공급시장 경쟁 치열, 2016 미국 셰일가스 수출계획 등 위협요소 발생)

- EU 에너지 소비시장 의존성에서 탈피, 거대 소비시장인 동북아 3국(한,중,일) 및 아태지역으로 이동

: 2012년 기준, 동북아 3국의 LNG 수입량 - 1,887억 m³(전 세계 수입량의 57.5%)
러-중 간 가스공급계약 극적 타결 (2018년 부터 30년 동안 연 380억 m³ 가스공급, 총 USD 4,000억\$)
: 러시아는 2030년까지 총 에너지수출 대비 아태지역 원유, 가스 수출비중을 각각 25%, 20%로 목표 설정

- 이에 따라, 극동지역이 러시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자원·에너지 수출 허브로 새롭게 개발, 재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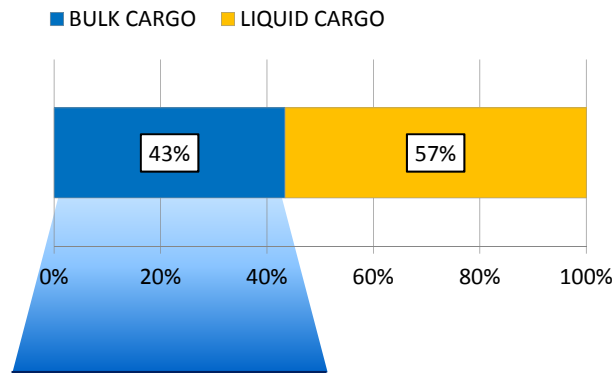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, 극동지역 개발 확대 정책에 따라 인프라 개발, 자원 물류, 신규 수요시장 창출 기회 마련 필요

Ⅲ. 러시아 주요 대외정책 대응 방안

6. 러시아 동진정책과 극동항만 물동량 증가 추이

- ① 2013년 총 물동량은 589백만 톤으로 작년 대비 3.9%↑ 성장함
- ② 총 물동량 中 벌크화물: 255.7백만 톤(43%), 전년대비 1.6%↑, 액체화물: 333.3백만 톤(57%), 전년대비 5.7%↑
- ③ 총 물동량 中 수출 물량 460.1백만 톤(78.1%), 전년대비 2.8%↑, 수입 물량 48.4백만 톤(8.2%), 전년대비 7.3%↑
- ④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 중, 극동 항만물동량 비중 26.4%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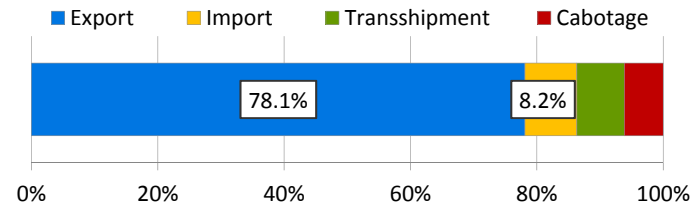
< 화물 종류별 물동량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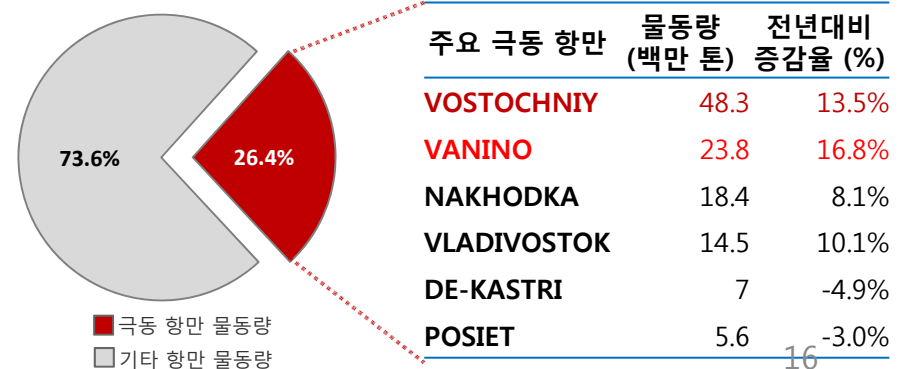
석탄	40%
컨테이너 화물	17%
메탈	9%
곡물	7%
화학비료	5%
광석	3%
목재	2%
기타	18%

* 벌크화물 중 석탄/컨테이너 화물 비중 57% 차지
 * 액체화물 중 원유 비중 62%
 → 석탄(+13,3%), 원유(+4,6%) 등 원자재에 집중된 현상을 보임

< 운송 목적별 물동량 >



< 극동지역 항만별 물동량 >



IV. 한-러 통상,산업 발전과제

1. 한-러 간 경제협력 현황과 문제점

- 한-러 교역은 극명하게 '소비재 수출-원자재 수입' 이란 상호보완적 구조를 띄지만, **매우 편중된 품목 특성을 보임**. 한국의 대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수출의 50% 가까이 차지하며,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LGN, 광물, 원자재 제품이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 (참고: 2013년 대러 수출은 111.50백만\$, 대러 수입은 114.96백만\$)
-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 누계액은 USD 19억 8,985만\$로 집계되었으나, **최근 3년 간 대 러시아 투자건수나 투자금 규모는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임**.

<한국의 대 러시아 교역·투자 추이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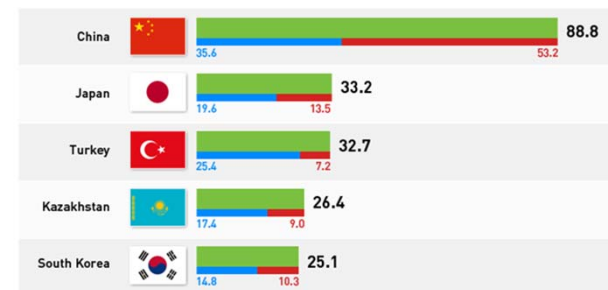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 불) / 출처: 무역협회

구 분	2011	2012	2013	2014.6
수 출	10,305	11,097	11,149	6,054
수 입	10,852	11,354	11,495	7,582
투 자	100	109	122	34

❖ 결론적으로 현 시점 한-러 교역,통상,투자 협력 부문에서 일정 부분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.

- 교역구조가 너무 편중(한-B2C제품 수출, 러-원자재 수출)
- 러시아 B2B,B2G 시장 진출 한계(엔지니어링,설비,정부조달)
- 한국 러시아산 원유, LNG 구매량 확대 의지 약함
- 중소기업제품(Hidden Champion) 교역거래 비활성화
- 상호 현지직접투자에는 매우 인색

< 러시아 주요 파트너 국가(아시아) >



Trade turnover, in bn of USD Exports Imports

* 출처: 러시아통계청

IV. 한-러 통상,산업 발전과제

2. 한-러 간 통상,산업 발전과제

▪ Business to Customer Market (상품 수출, 현지공장 진출)

- 한국 대기업들의 품질·가격 경쟁력, 글로벌 마케팅 전략 우위 요인으로 성공적으로 러시아 시장을 공략 중
☞ 현대,기아 - 자동차/ 삼성, LG전자 - 스마트폰, 백색가전, IT제품 / 도시락,오리온,롯데 - 식품,제과 등
- 그러나, 최근 중국 IT제품 도전, 일본 자동차, IT제품 부활, 유럽의 견제 등으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임.
- 한국의 혁신기술, 품질/가격 경쟁력 있는 **HIDDEN CHAMPION** 제품 발굴 및 해외수출 대행 방안 마련 필요

▪ Business to Business/Government Market (공공조달시장, 시공, 납품시장 공략) → 유럽 대체시장 공략

- 에너지,자원 플랜트 건설, 항만개발, 교통인프라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, 시공 등 EPC 산업 진출
- 중장비, 하역기계, 특수기계, 산업설비, 건설자재, 특수강, 부품시장 부문 유럽제품 대체시장 공략 필요
- 혁신기술 중심의 IT 제품, 시스템 통합 서비스, 교통관제, 금융서비스 산업 진출
- 의료기기, 의약품, 제약, 의료서비스 산업분야 공략

<러시아 공공조달 시장 현황>

* 출처: 러시아 조달청

구분	단위	2012	2013	2014(1/4분기)
조달규모	백만USD	244,740	641,908	121,925
조달 건수	건	2,222,917	3,177,444	587,534
등록된 조달 발주기관	개사	233,812	239,483	242,196

▪ Direct Investment Market (극동 선도개발지역(TAD) 투자, 극동지역 특성화 사업 진출 방안)

- 극동 인프라 & SOC, 교통, 물류 분야 투자사업 : 정부지원, FI, SI 컨소시엄을 구성한 PEF 구성 진출 방안
- 생산공장 합작사업 : 러-자본, 시장, 한-생산,제조기술 구도로 세제 혜택 보장 극동 선도개발지역(TAD) 진출 방안
- 자원, 에너지 물류 인프라 개발 : 한국의 전략자원 중심으로 러시아 관련 에너지,자원생산 및 물류 인프라 보유기업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 무역, 물류 운송 연계를 위한 항만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방안

IV. 한-러 통상,산업 발전과제

3. 러시아 비즈니스 성공 진출을 위한 유용 Tip

✓ **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** : 단순히 언어적인 통역상의 문제뿐만 아니라, 러시아 비즈니스 관행과 mentality 에 대한 이해도, 협상능력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이다.

✓ **문제 해결 능력** : '러시아에서는 되는 일도 없어 보이지만, 안 되는 일도 없다' 각종 인허가, 계약, 법률, 규정, 통관 과정 등 각종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방위 문제들과 변수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지 Networking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

✓ **Top-down 비즈니스** : 러시아의 중요 의사결정은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한다. 권위주의적인 보스 문화에 대한 이해와, 고위급 결정권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는 성공적인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.

✓ **수익성 프로젝트 발굴 능력** : 이미 공개된 투자사업 제안들은 대부분 수익성이나 사업타당성 면에서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많다. 대부분의 수익성 프로젝트는 숨어있는데, 이것을 발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.

✓ **현지 파트너 리스크** : 특히 러시아는 Country risk는 적어나, Partner risk는 매우 크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.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 파트너를 찾는 게 상호 윈-윈의 지름길이다.

✓ **신뢰성 있는 전문가의 실질적 자문 필요** : 러시아 지역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들은 희박한 실정이다. 따라서 러시아 지역 통상, 투자 관련 현지 전문가들의 지식과 자문이 필요하다.

✓ **결론적으로, 러시아 시장진출에서 한국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Business Item 선정, Target market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분석, 그리고 현지 문제해결 능력과 사업적 확신이 동시에 필요하다.**

THANK YOU

